

# 교사들이 제자를 위해 쓴 삶의 동화

「푸른나무 아동문고」 시리즈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쓴 삶의 동화’를 표방하는 「푸른나무 아동문고」 시리즈의 제8, 9, 10권. 아이들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비현실적 이야기거나, 아이들의 고민을 다루더라도 단순한 흥미거리로 전락시키고 마는 종래의 일부 창작동화의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자 아이들의 생활과 고민에 밀착된 소재를 건강하고 깨끗한 시각으로 형상화했다.

이중 「만길이의 짝바꾸기」는 교육문예창작회 안산지역모임 교사들의 창작동화집. 공장이 많은 안산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이 동화집에 등장하는 주인공들도 대부분 맞벌이가정의 아이들로서, 불량배의 꾀에 빠지거나 성인용 비디오에 접하게 되고 부모의 관심과 애정 부족에 불만스러워 하기 쉬운 조건에 있지만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스스로 자라나는 건강함을 보여준다. 표제작(임덕연)을 비롯해 「껌라면

도시락」(강석균), 「신문배달」(김영주), 「아빠 나 1등 기술자가 될래요」(김옥덕), 「자꾸 비디오 생각이 나요」(이수정) 등 8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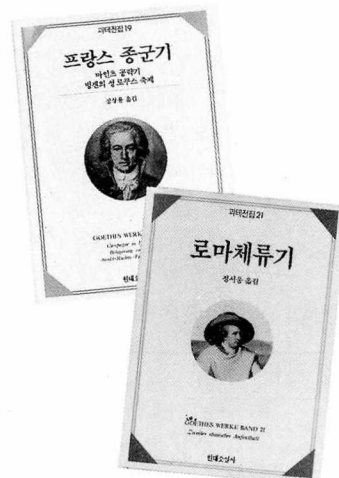
제9권 「우리도 알 건 다 알아요」는 교육문예창작회 서울동부지역모임의 동화집으로 노동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간 아버지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 벼랑끝에 선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 억울하게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를 지키려는 아이들, 화이트데이를 계기로 외래문화가 범람하는 현실을 반성하는 이야기, 전학을 자주 다니는 아이가 겪는 어려움 등을 소재로 삼아, “우리도 알 건 다 알아요”라고 당당하게 나서는 아이들의 이야기 8편이 수록돼 있다.

제10권 「내일은 맑을거야」는 철거민의 애환을 그린 장편동화로 해적교사이기도 한 소설가 송언의 작품. 농사를 짓다 끝내 견디지 못하고 상경했지만 행상과 막일로 서울에서도 여전히 불안한 생계를 꾸려야 하고 늘상 철거의 우려에 시달려야 하는 도시빈민의 삶 속에서 오히려 삶의 소중함과 엄숙함을 찾아내고 있는데, 순수한 아이들의 눈에 비친 가난한 이들의 세상살이를 잘 드러내 보여준다.

박향미, 김홍영, 이동진 등 교사 및 교사출신들이 각권의 일러스트를 맡은 것도 특징. 푸른나무 / A5신 / 각160면 내외 / 각 2500원

# 국내최초로 완역되는 ‘괴테전집’

「프랑스종군기」 「로마체류기」



에리히 트른츠가 책임편집한 「괴테전집(Goethes Werke)」 함부르크판본을 텍스트로 삼아 국내내수의 독문학 교수들이 편집위원(대표 지명렬)으로 참여, 전28권으로 번역·출판될 예정인 한국어판 「괴테전집」의 제19권과 21권으로 「프랑스종군기」(장상용 옮김)와 「로마체류기」(정서용 옮김)가 첫선을 보였다.

본격적인 완역으로는 모두 국내 최초가 되는 이 두권의 책중 「프랑스종군기」에 수록된 작품은 세편. 프랑스혁명 이후 수립된 새 공화국을 붕괴시키고 절대왕정국가를 수립할 목적으로 이뤄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연합군의 프랑스침공에 칼 아우구스트공작의 수행원 자격으로 참전한 괴테의 진중생활을 그린 「프랑스종군기」와 「마인츠공략기」, 그리고 노년기에 접어든 1814~15년의 라인강유역 주유기

「1814년과 1815년의 라인강, 마인강, 네카강 변의 여행기」 가운데서 초역한 「빙겐의 성 로쿠스축제」가 실려 있다. 국내독자들에게는 거의 소개조차 되지 않은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괴테의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데, 현실감이 뛰어난 괴테의 천재성이 독특한 매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역자의 말이다.

「로마체류기」는 세 차례에 걸쳐 출판된 괴테의 「이탈리아기행」 중 가장 나중에 씌어진 제3부 「두번째 로마체류기」를 번역한 것으로, 일지 형식인 앞의 「이탈리아기행」에 비해 색다른 구성을 보여준다. 체류일정에 맞추어 그 날에 일어난 일과 생각을 기록한 편지를 비롯해 한달 간격으로 그달중 특히 기억되는 사건이나 정신적 감흥을 ‘보고’라는 형식으로 기록하여 삽입시키고 있는가 하면, 사이사이에 괴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중요한 논문과 편지, 특정사건에 대한 인상을 추가로 기술해 넣고 있는 것.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흥미 위주의 여행기가 아닌, 대시인이 겪은 삶의 전환기적 체험의 기록으로 평가되며 큰 찬사를 받아 왔다.

「괴테전집」의 구성은 원텍스트의 순서를 따르되 출판은 각권의 번역이 끝나는 차례대로 할 예정인데, 다방면에 걸쳐 있는 괴테의 모든 저술을 통해 추출해 낼 수 있는 온전한 괴테상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현대소설사 / A5신 / 각 278, 262면 / 각 7500원

신산업구조에 필수적인 용어사전!!

## 현공업용어대사전

4×6 배판 1,520쪽 값 85,000원

전자(전기, 컴퓨터), 화공 금속, 기계(자동차, 항공 공구) 분야에 걸친 종합 용어사전

육영문화사 Tel : 723-1177 Fax : 723-1188

김경실 에세이

## 사랑 멀리

시적 수필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 -스포츠 조선-  
시적인 감각과 필치로 -서울신문-  
써어진 수필집 신국판 202면 값 3,500원

전기하 제1시집

## 저 높은 곳

조용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조국수호의 명령앞에 바치는 저자의 목소리!

전기하 제2시집

## 낙동강

신국판 각권 값 2,500원

송골 제7시집

## 벌써 흠이시네

오동춘 지음

우리 말과 글, 일을 사랑하며 교단에 몸담은지 30여년만에 펴낸 주옥같은 짚신 서민의 시! 신국판 218쪽 값 3,800원

한동희 에세이

## 사람, 그 한 사람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그 한 사람에게 고백하십시오

신국판 226면 값 3,500원

책을 만드는 즐거움!!



전산조판, 출판기획, 광고 기획, 디자인, 제작대행 전문회사가 새로이 탄생 하였습니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 7-2 Tel : 736-1144

# 부모들 위한 생활속의 육아프로그램

「모든 자녀교육」 시리즈 전8권



여서 좋은 말의 패턴을 일일이 예시해주고 있다.

저자 루스 보든 여사는 미국의 교육자로서 부모야말로 가장 훌륭한 교사라는 생각 아래 이 책의 육아프로그램들을 개발해냈는데, 제1권~4권은 '아이의 좋은 자아 형성을 위한 책'으로, 제5권~8권은 '아이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책들'로 꾸며져 있다. 「잔소리하지 않고 좋은 버릇 들이는 방법」 「아이가 긍정적인 자아를 갖도록 하는 방법」 「아이의 8가지 기본요구에 응하는 방법」 「집안살림을 이용한 강좌 43가지」 「아이의 어휘수를 늘리는 방법 26가지」 「책읽기의 필요한 5가지 기술을 개발하는 강좌」 「아이를 바른 독서로 이끄는 방법」 등이 그것들.

쉽게 실천하기 어려운 거창한 교육프로그램 대신 단순명료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부모와 아이의 대화를 통해 육아효과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책이다.

미국 교육국 차원에서 미국전역에 보급하고 있는 교육계획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 미국의 사회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육아 상황의 일단을 알려준다. 적절한 책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날권으로도 판매한다.  
웅진출판 / B5변형 / 각 20~44면 / 각 1500~2500원

만 두살에서 여덟살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실용적인 육아시리즈 아이에게 자신감을 키워주고, 아이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부모가 시도해볼 만한 방법들이 재미있는 일러스트와 함께 소개돼 있는데, 내용별로 분책(전8권)되어 누구나 손쉽게 펼쳐볼 수 있도록 편집돼 있다.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려는 부모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자 제시된 내용들을 실험하는 '이동교실'을 운영한 것으로도 유명한 이 책은, 무엇보다도 부모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서 동원할 수 있는 친근한 육아 프로그램들을 제시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가령 제1권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 16가지」를 보면 "...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세요"로 나눠 아이에게 해서는 안될 말과 하

# 유머와 풍자의 콩트앤솔로지

「모음 기획콩트」 시리즈



는 미혼 직장인 등 각양각색의 직장인들이 사내에서만 아니라 지하철, 엘리베이터, 커피자판기 앞 등에서 펼치는 생생한 생활현장을 보여준다.

「로맨틱 하시네요」는 답답할 정도로 보수적인 사람에서부터 지나치게 자유분방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의 애정관을 지닌 현대인들의 연애편곡도를 그리고 있다.

강병석 구광본 구혜영 김제철 박상우 송언 송영 엄창석 유재용 이상문 이숙자 이승우 이원하 정길연 정영희 조선작 최기인 최용운 한승원 황충상 등 낮익은 중견작가들과 유망한 신인작가들이 각각 자신의 세대가 지닌 애정관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데, 등장인물들은 모두 어떠한 형태로든 천생연분을 찾아해매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요절복통할 구애작전도 읽는 맛을 더해주는 데 한몫을 한다.

두권 모두 콩트집이라는 특성상 가벼운 입을 거리에 그칠 수도 있지만, 지명도 있는 작가들의 대거 참여로 나름의 문학성을 잃지 않고 있으며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도 소설가 특유의 탄탄한 구성으로 일회성의 재치와 유머 이상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 눈길을 끈다.

모음사 / A5신 / 각316, 328면 / 각4000원

인기작가들이 직장생활과 현대인들의 연애편곡도를 소재로 쓴 콩트 모음으로, 앞으로 계속 출간될 이 출판사의 기획 콩트시리즈 첫책 권과 두번째권이다.

「그게 비빈다고 됩니까」는 제목이 암시하듯, 치열한 경쟁과 삭막한 인간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긴장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도시 직장인들의 애환을 유머 넘치게 그리고 있다.

구효서 김수용 김형경 박정요 신경숙 신상웅 양인자 유순하 유정룡 윤후명 이용범 이창동 임동현 정소성 채희문 최수철 함정임 등 현재 활발한 작품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 17명의 콩트 3편씩을 묶어 직장생활에 흥미를 잃은 사람, 아부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항상 책상 서랍 속에 사직서를 써놓고 다니는 사람, 바쁜 와중에서도 멋진 사랑을 꿈꾸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우리 토박이말의 쓰임새를 한데 모아 드디어 출간!!

**우리말 분류사전** 제 1 권 이름씨 편  
제 2 권 풀이말 편  
(부록: 북한에서 쓰이는 우리말)  
엮은이 남영신 4×6 배판 각권 36,000원

**우리말 맞춤법·표준어 사전**  
엮은이 남영신 신국판 760쪽 양장제본/값 18,000원

개정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따라 엮어진 사전!! 혼동하기 쉬운 낱말을 구별하기 위하여 "표준어 모음"을 실었습니다.

##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문장력향상의 길잡이

서정수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국어정보학회 회장

“사고력과 문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충실한 길잡이”

설명문, 논술문, 수필, 기행문, 보고문, 기사문, 일기, 편지, 학술논문, 기말 리포트 등의 작법을 자세하게 다루어 교육자와 학생들의 문장 지침서가 될 것이다.

신국판/757면/정가(부록포함) (보급판) 11,700원 (양장본) 14,900원

**한강문화사** 전화 722-7311  
팩스 723-1188  
서울 종로구 사직동 7-2(사직회관 205)

The Dictionary Interior & Design

## 인테리어 디자인 사전

최장혁·권오성 공저

인테리어의 역사, 계획, 제도, 실내구조, 가구구조, 재료, 시공과 가공, 실내스케치, 인테리어 디자인의 용어 등 수록.

신국판 446쪽 값 15,000원